

소중한 희망 새로운 각오

이 민 영 | 제20기동기회 회장

신록이 우거진계절에, 양성과정이라는 호기심어린 책을 들고, 몽마르뜨 언덕이 아니라도 좋은 종로구민회관 골목길을, 하얗게 타박타박 오르내리기를 거듭한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수료 시험이라는 작은 역경을 넘어서 긴잠을 청할 여유도없이 2차시험 과목과 씨름을하며 지냈었던 지난 몇 개월간이, 파노라마와 같이 나의 머릿속에 흘러 지나갑니다.

2차시험이라는 냉혹한 문제지를 받아보고, 어찌할줄 몰라 가슴이 마냥 뻥뻥린 바람소리를 듣는것 같이, 자신의 무력함에 허무한 기운이 엄습하기에,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떠오르는 가족의 얼굴에 힘을 얻어, 답안지에 빼곡히 적던 사연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긴-휘파람 소리를 나중에 불렀다며 가슴 진정시키고, 동구밖 반가운 손님을 사슴의 목으로 고대하던 기다리던 합격소식과 자격증을 받아보고, 새로운 인생여점에서 몇가지를 겸심하여 봅니다.

첫째, 어렵과 힘이 들 때는, 합격소식과 자격증을 회상하자.

둘째, 하루 하루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살자.

셋째, 지도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명심하고 중소기업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동안 공장개발전문가로서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컨설팅을 한다고하면서 “고객만족” 보다는 고객불만이 더 많았으며, 모든것을 내 판단 과 내입장에서 처리하고 결론을 내렸던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경영지도사로서 다시는 이런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내집마련이, 집없는 서민들의 꿈이라면, 중소기업자들에게는 “내공장 마련” 이 평생의 소망입니다.

임대공장의 애로사항으로는 ①과중한 임대료부담 ②설비투자 기피로인한 생산성저하 ③잡은 공장이전으로 인한 조업불안 ④열악한 작업환경 ⑤비생산적인 작업공간 등 이있으며 자가공장확보의 어려움으로는 ①공장용지의부족 ②적정면적구하기곤란 ③지가의상승과 담보부족 ④미흡한 금융지원 ⑤복잡한 인허가 등으로 10년이넘어도 임대공장으로 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공장마련 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매출액과 수출액을 증대시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내년에는 50개 기업들에게, “기술혁신형 맞춤형공장”을 마련해주어 그들의 꿈을 경영지도사로써 이루어줄 각오입니다.

이제 우리는 “20기 동기”라는 이름으로, 레이스에서 막 출발하려는 마라톤 선수같이, 아니면 몽마르뜨 포구에서 만선을 기대하며, 수료식이라는 만조가 들어오면, 뜻을달고 각자의 어장을 향해 나아가려는 어선들 같이, 분주하게 설레이는모습을 오늘도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보고있습니다.

또한, 이 포구를 떠나 각자 항해를 해가는데 난파되지않도록, 실무수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사람 한사람에게 “나침반”을 마련해 준 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정북방을 가리키듯이, 지도사의 시대적인 사명과 역할을 늘 명심하며, 정북방의 쫓대를 향해 목표지향적으로 정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위치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므로, 꿈과 비전과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해결사로서, 전문의로서, 지도사로서의 윤리강령을 지키며 정진할 것입니다.

아무썽록 협회는,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등대”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되어 주실줄 믿습니다. 지도사로서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상, 능력배양을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평생학습과 도전정신을 갖도록 해주시고,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되어, 우리 협회와 회원들이 더욱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선배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출발하는 후배들은, 선배님들이 가시는 승리의 깃발만을 바라보며, 그 그림자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낙심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외면하지마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우리 협회 와 지도사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과 20기 동기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항상 꿈과비전을 가슴에 품고, 보이지 않는것을 보는기술을 가지고, 힘찬 첫 발걸음을 내 딛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은 혁신의 추진, 새로운 시장의 창조, 네트워크를 통한 공생 경영 체의구축, 글로벌 경영전략의 추진, 인간중심의 경영에 발맞춰,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사들도, 이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으로, 재무장하고 도전하여,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나아가야 겠습니다.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또는 일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나 제품이 있다해도, 네트워크 없이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우리 20기 동기 부터라도 좋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지도사로서의 미래는 좋은 기회와 결실로 향상되어 나아갈것입니다. 기회란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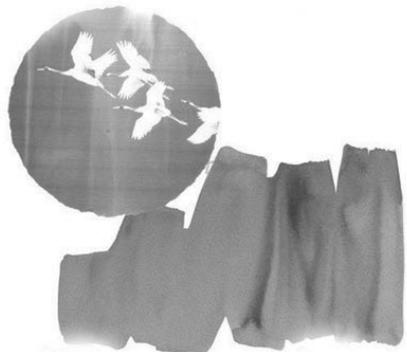
예화를 하나 들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3개월이상 살지못한다고 진단을 받은 중병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사가 하는말이 “내가 이약을 줄테니 정해진 시각에 다섯알씩 먹도록 하십시오. 3개월이 지나면 죽지 않는다는것을 알것이고, 6개월이 지나면 병색이 완전히 가실것이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병이 치유될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걸러서는 안되며, 무슨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각에 먹어야 합니다“

살려는 의지가 강한 환자는, 마지막 희망인 의사의 말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그 약을 열심히 먹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테헤란로 거리에, 서울장안에 중병환자같은 컨설턴트들의 모습이 아니보이십니까? 우리는 성공한 지도사들이 끝난시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다섯알씩을 먹어야 살듯이, 컨설턴트로써 살아남으려면, 매일같이 5명이상의 가망 고객을 1년 365일 찾아 만나야 할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는, 1년후에 아주 건강한 컨설턴트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20기 동기들의 뱃고동 소리가 여기저기서 뽕-뽕-하며 아주 힘차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모두는 5년후 10년후에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될것입니다. 서로 손에 손을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좋아하던 애송시를 가슴 조용히 읊조려 봅시다.

“떨어져버린 낙엽을 세지말고
 피어있는 꽃을 세며 정원을 보라
 어두웠던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좋았던 시간들을 세어가며 나날을 살아가자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밝은 별을 세며 밤을 보내자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생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다가오는 생일을 맞이하자
 살아온 햇수를 세지말고
 친구를 세어가며 살아가리!



“이젠 봉사도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인터뷰] 열린사회 자원봉사연합' 연제는 대표 (본회사사, 경영지도사 제2기)

“우리 단체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영지도사 및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모인 곳으로 평소 장애인이나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을 위한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펴는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입니다. 금년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제정 돼서 앞으로는 기대가 큼니다.”

지난 5일, 여의도 63빌딩. 제12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만난 연제는 ‘열린사회 자원봉사연합 (<http://openbongsa.org>)’ 대표는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국회통과를 기뻐했다.

무조건적인 봉사보단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장려·보호조치 마련과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 책무 등의 책무 명시 및 국가 기본계획 수립, 자원봉사 민간 인프라 확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날의 조직위원이기도 한 연 대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20%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자원봉사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고 무조건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원봉사도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제는 <열린사회 자원봉사연합> 대표



▲ 이날 행사에서 '청음수화합창단'이 수화노래를 표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마라톤 대회' 에도 함께 하게 됐는데.

“저희 열린사회 자원봉사연합에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죠(웃음). 노년기 희망봉사단이라는 부설단체를 두고 여러 마라톤 대회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마이뉴스 마라톤 대회에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직접 달리진 못 하지만 여러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웃음).”

- 흔히 이야기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는.

“우선 열린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엔 그것이 가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그런 연습이 꾸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 이에겐 일종의 마일리지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봉사란 것이 얼마나 큰 덕목인지를 알게 해주어야겠지요.”

그는 그런 반복체험을 통해서라도 봉사의 필요성을 일깨워야 한다며 단순히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에게 과연 봉사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아닌 마음이 건강한 젊은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책상 앞에서 배우는 봉사가 와 닿으면 얼마나 와 닿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주물러 봐야만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배우는 행위를 통하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윤리 의식이야 물론 덩으로 따라오지요.”



▲전국의 자원봉사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한 자리.

진정한 봉사를 위해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연 대표는 “여러 위급 상황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지는 않느냐”며 마음만 앞서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준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과연 휠체어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혹 실수했다가는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린사회 자원봉사연합에서는 봉사활동뿐 아니라 연수회,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 봉사자들의 교육도 맡고 있다고 한다.

“21세기는 봉사의 시대입니다. 미국같이 거대한 나라도 사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 중 하나는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봉사자의 힘입니다. 정부나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나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간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며 겸손해 하는 연 대표에게 오마이뉴스 마라톤에서 함께 뛰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나이가 많아 이제 걷는 게 좋다”며 웃음을 보였다.

“아무래도 노인들은 뛰는 게 조금 벅차죠. 다음부터 '오마이뉴스'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거북이 마라톤 같은 걸 해 보면 어떨까요(웃음). 참 이번 달 29일에 저희가 주최하는 '청계천 따라 걷기 한마당'대회가 열립니다. 함께 걸어 보시지 않겠어요?(웃음)”

